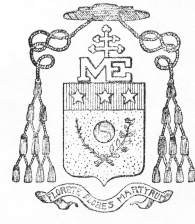




08

8대 교구장 (프랑스) 1890년~1933년 뮈텔(Mutel, 민) 대주교



올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 역대 교구장에 대해 아주 작은 퍼즐이라도 함께 찾아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직접 찾아보고, 생각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서울대교구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교구장들의 삶이 주는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찾은 서울대교구 여덟 번째 교구장님은 뮈텔 대주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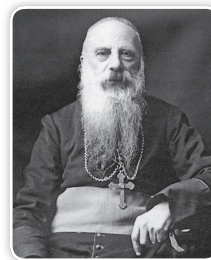
8대 교구장이신 뮈텔 대주교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순교자들의 꽃을 피어나게 하라’는 그의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순교자 현양과 한국 천주교회사의 정립, 그리고 순교복자의 시복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열매를 맺었는데 1925년 7월 5일, 그의 오랜 숙원이던 한국 순교복자 79위에 대한 시복식이 교황 비오(Pius) 11세에 의해 거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68년도에는 24위의 복자들이 추가로 시복되었다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굿뉴스 참조) 결국 1984년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103위의 순교성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시작은 1925년의 시복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증거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순교하는 이들과 그 순교자들의 꽃을 피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고, 그 일들을 전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뒤따라오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어쩌면 후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차근차근 알려주신 분이 뮈텔 대주교님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뮈텔 대주교님이 교구장으로 계셨던 재임 기간이 44년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재임 기간 거의 매일 작성한 뮈텔 일기에 교회 내외의 주요한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교님이 얼마나 꼼꼼한 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방대한 뮈텔 문

서를 통해서도 주교님의 열정이 전해집니다. (1871년~1925년까지 총 13,451건에 달하는 교회사 및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의 문서: 서한(書翰)·공문(公文)·신문기사(新聞記事)·전보(電報)·유인물·명함(名牒)·안내장·외교문서(外交文書))

본당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본당 사목일지를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만으로 그쳤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바로 그 사목일지와 매주 본당 주보의 알림란이 그 본당의 역사를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1차 자료가 될 터인데, 많이 소홀히 했었습니다. 지금도 대주교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뮈텔 일기와 뮈텔 문서도 함께 전해지고 있고, 구한말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힘들 때를 버티어냈는지도 알게 하는 직접적인 원자료로 인정되고, 지금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번역중이거나 연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힘들었을 그때, 교회를 지탱하고 순교자들을 현양하기 위해 애쓰셨던 주교님을 기억하면 많이 죄송합니다. 그때의 그 노력의 열매는 2014년 8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까지 이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주교님께서 애쓰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교님.

이도행 토마스 신부



- 1877년 2월 24일 서품.
- 1880년 11월 조선 입국.
- 1890년 교구장 임명. 이듬해 로마에서 주교 성성식을 갖고, 다시 조선에 입국하여 명동대성당을 완공하였으며, 교세 확대와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에 노력하여 1925년 7월 5일에 79위 복자를 탄생시켰.
- 1920년 교황청으로부터 백작작위를 수여받았고, 1925년 3월에 대주교로 승품됨. 1933년 1월 23일 선종.

사진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출산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특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의 창조 활동에 인간을 특별히 참여시키길 바라시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창세 1:28 참조) 따라서 출산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특별히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충만하고 특별한 축복의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복음 43항) 글 생명위원회